

오수역 옛명성 회복 신호탄

임실군 오수역참비 제막식 천년의 역사적 가치 되새김

임실군이 옛 고려시대와 조선후기가 지 전북 동부권의 상업과 교통, 문화의 중심지였던 오수역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는 오수역참비를 건립했다.

12일 임실군 오수역참비건립추진위원회는 심민 군수와 문영두 군의장, 이성재 의원 등 관내 기관·사회단체장과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수역참비 제막식을 갖고, 천년의 역사를 가진 오수역의 역사적 의의를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임실군 오수역참비건립추진위원회가 12일 오수역참비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제막식은 지난 2015년에 민간 차원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 2년 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오수역의 남다른 역사적 가치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담긴 행사다.

역참비는 상석과 하석으로 구성됐으며, 가로 220cm와 세로 190cm, 폭 60cm의 크기로 이 고장 출신 중수 박태규씨가 작성했으며, 옛 역참 터인 오수상인회 주차장 부지에 설치됐다.

국립전주박물관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예부터 오수는 할방사가 있는 오수도의 수역으로서 남원과 곡성, 구례, 광양, 순천 등 11개 역을 관할한 곳으로 리 727명, 노 178명, 비 42명, 말 15필, 보인 322명, 졸 161명, 인수 10명, 인호 360호가 있었다고 기록되

고 있다.

1894년 갑오경장 이후 신식 우정제도의 도입과 1931년 전라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역참기능은 멈추게 됐다.

건립추진위원회는 오수역참비의 아련한 기억과 이를 안타깝게 여긴 지역주민들의 향토자료 보존에 대한 열정을 담아, 오수역참비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현재도 오수는 사통팔달의 교통중심지로 장수 산서, 순창 동계, 남원 덕과·보절·사매, 임실 삼계·성수·지사면의 생활중심권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김진영 위원장은 "사료 찾기와 고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역참비를 세우

고, 제막식까지 갖게 돼 매우 뿌듯하고 기쁘다"며 "일천년 터전위에 반석을 다시 다지는 역참비를 세운 만큼 번성했던 역사를 회상하면서 번영의 길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민 군수는 "과거 오수는 전북동부권의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로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지역이었다"며 "옛 오수역의 역사적 가치를 살리는 역참비 건립을 통해 오수지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임실군 발전의 한 축으로 오수가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발굴, 개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순창군 승마장 공식 오픈

총 사업비 57억원 투입... 500만 관광객 실현 무게

순창군 승마장이 12일 본격 개장해 군민 여가선용은 물론 고추장민속마을과 강천산을 잇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팔덕면 구룡리 5-1번지 일원에 조성된 순창군 승마장은 1만9,735㎡규모에 실내외 마장 마사과 사무실 등을 갖췄으며 2015년 9월 착공해 지난해 10월 완공됐다. 부지매입비를 포함해 총 57억원이 투입된 사업이다.

강천산일원~승마장~고추장민속마을을 잇는 체류형 관광코스 개발로 500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군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체류형관광코스는 해마다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강천산과 최근 발효소스토글 미디어 아트 사업으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고추장 민속마을에 승마장체험을 더해 하루 이상

관광코스를 만드는 시스템이다.

특히 승마장 인근에 축산진흥센터도 본격 운영될 예정이어서 먹거리가 가미된 시너지 효과에도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또 강천산 일원에 수체험센터 등 관광개발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는 점도 500만 관광객 실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전주와 광주 등 인근 대도시에서 차량으로 30~40분 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도 운영상 강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관련 12일 팔덕면 구룡리 순창군 승마장 실내에서는 황숙주 군수를 비롯해 김종섭 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최영일 도의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양재혁 말산업학과장, 전주기전대학교 박영재 교수, 전라북도 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 등 초청인사와 승마 관계자,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장식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비월공원 등 식전공원과 결과보고, 축하테이프 커팅, 마상무에 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황숙주 군수는 "최근 승마인구의 확대에 따라 승마가 생활스포츠로 정착되면서 승마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면서 "광주나 전주 등 인근 도시의 승마레저 인구 유치는 물론 군민들이 여가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생활 속 승마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은 말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과 마필관리원 등 인력을 충원하고 말 9필을 들여와 훈련을 실시하는 등 운영 준비를 마쳤으며 13일부터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승마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수도권발 남원행 '자전거열차' 운행

28일부터 이틀간 주요관광지 라이딩... 전북관광활성화 기여

코레일 전북본부(본부장 한광덕)와 남원시는 제25회 남원홍부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남원시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오는 28일~29일(2일간) '에코레일 자전거전용열차'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에코레일 자전거열차는 제25회 홍부제(10월 27일~29일)기간 중 운행되며, 수도권의 자전거 매니어(244명)와 자전거를 싣고 남원에 도착하여 1박 2일동안 관한루, 춘향테마파크, 구룡계곡, 뱀사골, 달궁계곡 등 남원시 주요관광지 110km를 달리게 된다.

한광덕 전북본부장은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남원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멋진 자전거 여행이 될 것"이라

며, "코레일 전북본부는 앞으로도 뱀사골 단풍축제, 전주비빔밥축제, 익산천만송이국화축제 등 전라북도 주요축제와 철도를 연계한 전략상품을 운영하여 전북관광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용열차는 지난 7월 남원시가 남원철도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코레일 주요역 여행센터장과 마케팅 담당자를 초청하여 시행한 캠퍼에서 제안하여 기획되었으며, 자전거전용열차는 코레일에서 자전거 매니아층을 겨냥해 특수 제작한 전용열차이다.

에코레일 자전거전용열차에 관한 문의는 남원역(☎063-631-3229)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축사시설 화재예방 안전

남원소방서(서장 조용주)는 25일까지 관내 축사화재 예방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 순창 관내에서 소나 돼지, 닭을 키우는 축사는 총 1,933개소에 달한다. 대체로 영세농이 많고 소방안전시설 설치가 미흡하다.

화재예방방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10월 현재까지 최근 3년간 관내에서는 11건의 축사화재가 발생하였다.

남원소방서는 관내 대형 축사 및 전기취약대상 113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축사 화재예방 매뉴얼 및 서한문 발송, 축산 농가 대상 교육 및 간담회, 대형 축사 및 축사 밀집지역 화재예방순찰 및 현장방문지도 등 맞춤형 화재예방대책을 추진 중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뱀사골 단풍 그림그리기 대회

지리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소장 조승익)는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지리산 뱀사골 일원에서 '제5회 지리산뱀사골 단풍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제5회 지리산뱀사골 단풍 그림그리기 대회는 지리산 뱀사골의 아름다운 단풍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면서, 미래세대에게 자연과 소통하고 국립공원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며, 전화, 팩스로 사전 접수를 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의 상상력이 주제와 잘 어우러진 작품을 선정해 초등학교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나누어 진행되고, 결과는 10월 30일 지리산국립공원홈페이지(http://jr.knps.or.kr)를 통해 발표되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상 등 총 22명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영어페스티벌 행사가 'Dream Bigger Together'를 주제로 12일 임실영어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은 운암면 소재 임실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 열렸다.

임실영어페스티벌 열기 '후끈'

초·중생 400여명 참여 도전 골든벨 등 호응

임실교육지원청(교육장 장나영) 임실영어체험학습센터(MSEC)가 주최하는 임실영어페스티벌 행사가 'Dream Bigger Together'를 주제로 12일 임실영어교육의 산실로 자리 잡은 운암면 소재 임실영어체험학습센터에서 열렸다. 임실영어페스티벌은 올해 벌써 10주년을 맞았다.

임실교육지원청 장나영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실영어체험학습센터가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영어실력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임실 관내 초·중학생 신청자 400여명이 참여하여 World Discovery, Pop the Word Ballon 등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는 14개의 부스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가졌다.

또한 야외무대에서는 영어노래와 춤 등, 학생들의 꿈과 열정을 맘껏 펼치는 축하무대와 함께 도전 영어골든벨이 펼쳐져, 재미와 실속을 모두 거두는 효과관점의 페스티벌이라는 반응이 뜨거웠다.

임실영어체험학습센터 배숙자 원장은 "앞으로 학생들이 생생한 영어체험활동을 통해 자신의 영어실력을 기르고 세계를 향해 더 큰 꿈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흥영 기자

순창군 식문화 도농교류 청신호

순창군이 지역의 건강한 식문화를 통해 도시민과 교류하는 새로운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군은 13일부터 14일까지 건강장수연구소일원에서 '식문화 도농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번 식문화 도농교류 프로그램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도시민 30여명이 참여하며 당뇨 등 대사성질환을 치유하는 건강한 식단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는다.

순창군은 이번 식문화를 통한 도농교류 프로그램 이외에도 16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순창=이영원 기자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백두대간 역사관 3D 애니메트로닉스관
어드벤처 라이더관 5D 씨름영상관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천년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씨름영상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남원시